

희망실천

2013 Summer. Vol.17

<http://www.em21c.com>



EM실천
Environmental Society

바다

실어다 뿌리는
바람처럼 시원타.

솔나무 가지마다 샅샅히
고개를 돌리어 빠져들어지고

밀치고 밀쳐운다.

이랑을 넘는 물결은
폭포처럼 피어오른다.

해변에 아이들이 모인다
찰찰 손을 씻고 구보로.

바다는 자꼬 쉼어진다
갈매기의 노래에.....

돌아다보고, 돌아다보고
돌아가는 오늘의 바다여!

〈윤동주〉



희망실천

2013 Summer. Vol.17

- 04 여는글 현대사회의 최대 복지는 고용이다 _ 은홍수
- 06 특집글 서울특별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상수상 _ 김지현
- 08 성년후견제도 똑똑히 알기
- 12 EM실천 새식구 소개 _ 장남현, 이원곤
- 13 '한자아놀자' 한자자격증 취득 _ 황찬희
- 14 새로운도전(직무훈련체험기) _ 박민정, 김재우
- 16 2013 상반기 실습생 소개 _ 허수정, 장원석
- 18 우편발송 광고
- 20 직장외신! 미스김 체조 따라하기
- 22 EM실천 사용설명서
- 24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소식
 - 해외연수보고서 II '일본 베델의 집 방문기'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종사자 체육대회 in songdo
- 28 5월의 봄나들이
- 32 인쇄 광고
- 34 춘천마임축제를가다
- 36 여름캠프 -  
- 40 이엠실천 막내들의 귀여운 하소연 : 평가보고
- 42 News
- 43 2차 운영위원회, 2013년 예산안
- 44 현수막 광고
- 46 자원봉사, 후원 모집

발행일 2013년 7월 31일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릉테크노타운 6차 1004호
전 화 02-875-9744
팩 스 02-875-9965
홈페이지 <http://www.em21c.com>

“현대사회의 최대 복지는 고용이다.”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장 | 은홍수

4
+
5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장 은홍수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직업이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간이 사회인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근본이 되다는 것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복지 영역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세계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인으로 당당히 자립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직업세계보다 사회의 관심과 인식의 전환 및 배려가 있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 관심과 인식의 전환 및 배려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회에 대한 관심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의 실업률에 비해 10배 정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근로 장애인이 특성에 맞는 제도적장치와 직종개발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체해야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미비한게 현실입니다.

둘째, 사회와 기업주들의 인식전환

장애인의 고용을 사회나 기업주들이 좀 더 멀리 내다보는 데서 의미를 찾아야할 것입니다. 사업주들 또한 장애인들의 고용이 단순 손익을 따지기 앞서 사회통합의 의미와 장애인들의 근로 장점을 찾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취업 시 주변인의 배려

이것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경우 작업에 대한 기능 및 환경에 적응하기 까지는 비장애인들 보다 오래 걸리고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작업을 방해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취업현장에 적응하기 까지는 같이 일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고용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현대사회의 최대복지는 고용의 안전화 만이 그 사회의 전체복지의 내다 볼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생의 화려한 순간...

"서울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EM실천 디자인팀 디자이너 | 김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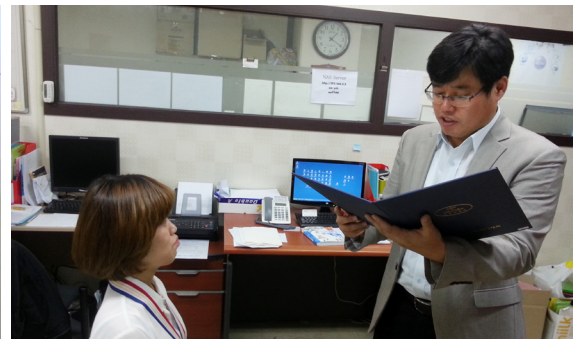
6
+
7



2013년 5월 30일 1년반동안을 기다리던 2013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 날을 위해 6년이란 시간이 지난것 같고,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였던것 같다.

재작년에 참석할 때는 전자출판의 직종을 일한다는 자만심에 빠져 경기규정과 원하는 바를 무시하고 작업하여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것 같다. 똑같은 실수를 만회하여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보다는 나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싶었다.



대회날 아침, 평소에 안먹던 아침밥을 먹고 대회준비물과 인터넷으로 서핑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보면서 집을 나섰다. 버스로는 늦을 듯 하여 택시를 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공고에 도착하였다.

출근시간과 같이 아홉시에 시작하려던 대회는 프로그램의 버전과 실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설치하여 30분 정도 미뤄졌다.

시험보러 오기 전 충분히 유인물을 봐서 그런지 시험지가 평범한 작업물인 것 같았다. 중간 정도에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끝날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서인지 아이디어가 급하게 머리속을 스쳐갔다. 이것을 재빨리 그려서 진행하였고 그 10분안에 내가 원하던 디자인을 작업하였던 것 같다. 시험시간은 끝이났고 가심사가 1시간 뒤에 있다고 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가심사를 위해 심사장에서 기다렸다. 초조하고, 긴장되고, 입상도 하고 싶고, 입상이 안되더라도 내 작품에 대해 누군가 설명해주는 답을 듣고 싶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심사장에 입상자들의 작품이 나열되었고, 노력의 결과 끝에 금상 입상을 하게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입상자 작품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도록 설명해주었고, 나 또한 내가 작업한 것의 장단점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입상자 결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입상이 되었다고 문자통보를 받았다.

한편으로 기뻐지만, 같이 시험본 동료와 같이 입상하지 못하여 내내 섭섭하였고, 다음번의 대회로 다시 도전하기로 하였다. 4달 뒤에 있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여권을 받게 되어 그 날을 위해 또 한번 도전하려 한다. 이번에 대회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토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내 생의 후회가 되지 않는 날이 되도록 도전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엠실천 식구들과 특히 시설장님과 디자인팀장님, 디자인팀원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항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우리 디자인팀에게 득이 된 것 같아 더 기쁘다. 이 대회에서 내가 느낀 것은 어느 것을 하건 간에 노력해야 결과가 얻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나 자신만 믿고 하는건 노력이라 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지 노력을 해야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좋아야 오래하는 것 같다.

이 일을 시작한지 고작 횡수로 7년밖에 안됐지만, 항상 재미있다가도 정말 죽기 싫을 정도로 하기 싫을때가 있지만 내 디자인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로 격려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일이 내 마지막 생이라 생각하고 30, 40, 50살을 먹을때까지 할 생각이다. 내 생의 화려한 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것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성년후견제도 똑똑히 알기 (성년후견제도 Q&A 소개)

2013년 7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13만8천명), 정신장애인(9만4천명)과 치매노인(57만6천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8
+
9





Q1.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국제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2006)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또는 정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프랑스(2007), 스위스(2008), 독일(2009) 등 제도 전면 개정 또는 개편 중)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결성되는 등 주로 발달장애인부모님들이 동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민법개정, 2011년3월)

Q2. 성년후견제도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 등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행위능력이 광범위하게 제한 받게 되고, 후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기가 어려워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가 내려지면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가족들이 사용을 꺼리는 요인이 되어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권한부여에 따라 의료행위나 우편물 관리, 거주지의 결정 등 신상과 관련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이 보장되고, 신상과 관련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을 두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가 됩니다.

Q3. 어떤 사람들이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가? 그 규모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13만8천명), 정신장애인(9만4천명), 치매노인(57만6천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1~3%가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Q4.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

개정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민법 제937조) 외국의 예를 보면 피후견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후견인이 됩니다. 제3자후견인으로는 무보수로 지원하려는 이웃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 법무사 ·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 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정민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을 고려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 · 경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민법 제936조제4항) 이에 따라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5. 후견인의 역할은?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법정후견) 또는 후견계약의 내용에 따라(임의후견) 재산관리나 신상관련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본인을 위한 의사결정의 대행,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무의 후원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고 개정민법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후견업무의 범위는 피후견인 개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생활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결정될 것입니다.(개인별 맞춤형)

Q6. 후견인이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후견인은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후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권리옹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에 의한 권리 침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개정민법의 취지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후견인을 선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정민법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에 권한범위를 변경하거나 후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후견업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후견업무를 감독하게 하고, 중요한 후견업무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7.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정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별도로 후견계약을 맺은

뒤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각각의 심판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이 나면 후견인이 선임되고 후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8. 후견 관련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비용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은?

후견인선임 청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작성, 가사비송사건 청구와 관련한 비용(인지대 · 송달료 등)과 가정법원이 정신감정을 요구할 경우 그와 관련한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보수수준은 가정법원이 결정) 아직 제도를 시행해 본 경험이 없어 구체적인 수준은 알기 어려우나 가정법원이 정신감정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와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일본의 경우 인지대 등에 10천엔, 정신감정에 50~100천엔 소요)가정법원은 취약계층을 위하여 심판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차구조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정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또한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자원봉사자 성격의 후견인을 교육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그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통해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 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의후견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Q10 후견인이 선임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후견등기 제도가 생겼습니다. 후견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 법령에 규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 있는 후견관련 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ilnews.co.kr) —

EM실천 새가족 소개



EM실천 우편발송사업부
장남현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에서 온 장남현입니다. 아저씨같이 행동하는 면은 있지만 힘은 세답니다. 일은 잘못하지만.. 잘 알려주는 우리 동료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부탁드립니다!!

12
+
13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M실천 우편발송사업부
윤전자 이원근

초 여름이 시작되는 6월 17일 첫 출근을 했다. 조금은 긴장도 되었지만 설레임과 기쁜 마음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나이 60이 넘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는게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저에게 제2의 삶의 기회를 주신 EM실천의 김영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직책은 회사에서 제작된 제품을 관공서 및 관계 업체에 납품을 담당하는 기사다. 단순히 납품만 하는 기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항상 청결과 사전 점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업체 및 관계자 분들에게 항상 미소와 친절로써 회사이미지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어떤 책에서 “다친 손으로는 일할 수 있지만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글귀를 보았다. 저로 하여금 우리 직원 모두와 관련업체 관계자 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주인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회사 내 최고령자로서 매일매일 웃으면서 일할 것을 약속해본다.

한자는 나에게 꽤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EM실천 우편발송사업부
황찬희

5월 12일 국가자격증 3급 한자시험.....

시험전날 그동안 공부한 암기 페이퍼를 뚫어놓고 끙끙거리다 결국 온밤을 새우고 말았다.

빡빡한 눈을 비비며 일찌감치 시험장으로 나섰다. 그간 두달넘게 판에는 뽀새게 공부한다 했건만 그래도 좀더 열심히 할걸 하는 후회와 그래도 '찬희야! 새벽4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했어 자신을 갖자. 행운의 여신이 지켜 주실거야' 라는 두가지 생각이 들었다. 한자 공부하면서 하늘 신(神)이라 믿고 있던 한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신(神)으로 씌이고 있는등 황당해서 받아 들일수 없는 경험도 했고 3급정도 되니까 회수가 많아서 짜증을 बारबार 내며 공부했던 경험들이 모두 좋은 시간들로 기억됐다. 드디어 시험을 치루고 발표날인 30일까지 기다리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발표날 컴퓨터 앞에 앉아 꼭두 새벽부터 '언제 발표하는거야' 하며 여기저기 클릭도 해보고.... 회사에 출근해서 9시가 지나서야 합격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얼마나 좋던지....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자는 나에게 꽤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한자 선생님이 될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자동아리를 만들어서 한자를 공부할수 있게 해 주신 회사측에 정말 감사한다.

그리고 하늘의 신께서는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과 꼭 함께 하실거라 믿으며 바람직한 내일을 약속받도록 기도한다.



국가공인자격증 한자4급

복사의 달인이 될래요~



EM실천 복사사업부 | 박민정

14
+
15

처음 복사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왜냐면 한 번도 복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숙언니가 자세히 알려줬다.

처음에는 홀수, 짝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A4, B5, A3 용지 구분하는 것도 배우고, 2주 후에는 체크기를 배웠는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아서 많이 속이 상했다.

그런데 은숙언니가 괜찮다고 해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배웠는데 지금은 체크기가 제일 쉽다.

그리고 스캔도 배우고 [서사협]이라는 컴퓨터 복사물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배우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린 것 같다. 지금은 컬러복사기 사용을 배우는 중인데 이것도 어려워서 너무 오래 배우는 것 같아서 동진오빠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다.

빨리 배워서 복사의 달인이 되어야겠다.



나 김재우는 EM실천에 입사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부서에서는 배운 작업이 DM발송작업이었는데 회원들과 조장님의 협조로 업무파악을 잘하게 되었고, 서로 도와가면서 업무를 무사히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수막실에서 곽철씨와 조하란씨가 현수막 출력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 번 해보고싶다 느끼던 중 현수막 부서에 결원이 생겨서 자원하여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로 현수막 출력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명령어 터치 및 사용 조작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현수막팀 조장 철이씨와 김지현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시 배우고 수정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현수막을 출력해서 조장 철이씨와 함께 주문한 업체에 배송, 납품을 다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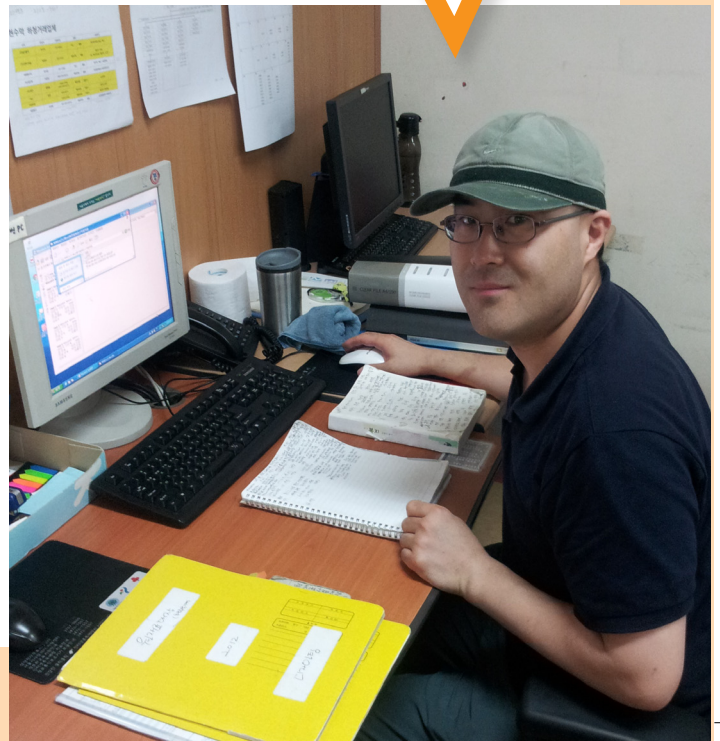
앞으로 기계 실수 안하도록 유념하여 주의하겠습니다. 기계 작동하려면 먼저 버튼 누른뒤 막 설치지않고 차분히 기다려야하므로 인내심과 끈기, 요령, 침착성과 조심성과 살핍성을 더 가지고 임하여야 겠습니다. 어찌되었던지 이제 EM 실천의 한 가족이 된 이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재주껏 능력을 발휘하고 실천하는 김재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성껏, 열심히 현수막과 배너를 맡아서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유능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과 배너 주문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직접 출력해서 납품해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사업부의 유능한 일꾼이 되고 싶어요~



EM실천 현수막사업부 | 김재우



잊지못할거예요. EM실천 !!!



문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허수정

16
+
17

이 곳 EM실천으로 직업재활실습을 했던 계기는 1년 전 쯤 조별과제로 기관방문을 하는 것이었는데 지도교수님께서 정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꺼라는 말씀에 태어날 때부터 경상도에서만 지내던 나는 가족들이 아닌 동기들과 처음으로 서울로 기관방문을 가 보았다. 처음에 정신 장애인 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겁도 났다. 잘 못 된 고정관념이기만 했지만 TV에서나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직업을 갖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EM실천의 첫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무척 친절하셨다. 그게 인상에 확 남아서 직업재활실습도 EM실천으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실습 첫 날! 교육과 직무지도, 둘째 날! 교육과 직무지도...셋째 날, 넷째 날 역시.. 하지만! 가면 갈 수록 여러 가지 교육과 기관방문, 사회적응지도, 사례관리 까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실습을 하는 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방문하여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고 사회적응훈련 때는 낯선 서울지도도 익히고 클라이언트 분들과 친분도 쌓고 사례관리 때는 한명의 클라이언트를 맡아 상담도 하고 증상도 치료하고 직업재활 실습의 알맹이만 쏙 쏙 뽑아서 했다. 클라이언트분들과는 직무지도를 하면서 많이 친분을 쌓았지만 기관의 선생님들과는 몇 몇분만 친분을 쌓아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다. 내가 살갑게 먼저 다가가지 못 한 것도 있지만 바쁜 업무 탓도 없지 않아 있다. 서울에서의 직업재활실습을 은밀하고 위대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힘 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잊지못할거예요, EM실천 파이팅 !!!

EM실천

사회복지 실습을 마치고...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장원석

처음에 사회복지라는 전공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기계공학에만 전념하며 공부를 하였다. 그런데 나의 성격과 나의 생활하는 것을 보신 주변 분들의 추천과 사회복지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공부하던 도중에 실습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EM실천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실습을 시작할 때에는 정말 아무 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였다. 수업으로만 들었지 직접 현장에 와서 해야한다는 것이 부담도 되었고 내가 여기 회원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반 기대반을 가지고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실습을 하는 동안에 취업유지모임, 볼링동아리, 등산동아리를 하게 되었는데 각기 다른 모임에 특성들이 있었다.

취업유지모임은 EM실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모임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회원들간에 정보도 공유하는 모임이었고, 등산과 볼링동아리는 운동을 통하여 회원들과 친목도 다지고 기분전환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세 동아리 모임을 보면서 동아리가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회원분들에게는 자신의 극한에 도전을 해볼수 있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할수 없지만 함께하면 할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았다.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회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나누고, 걱정하는 것과 힘든점을 이야기 하면서 그동안에 힘든것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론적으로만 배운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운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120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실습을 통하여 배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도 많은 것에 도전을 해보아겠다는 포부를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습기간동안에 많이 부족하고 아는것도 없어서 방해만 되었을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들과 회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2013. 5 등산동아리 참여하며...

꿈과 희망을 전하는

EM실천 "DM사업"

18
+
19

DB, 출력관리

- 1) 주소록 DB관리 및 정리
- 2) 주소인쇄, 라벨출력 등
- 3) 가변데이터 안내문 출력 가능

각종 인쇄물 제작

- 1) 봉투(전산, 비닐, 일반, 창봉투 등)
- 2) 공문, 안내문
- 3) 그외 (브로셔, 리플렛, 소식지, 초청장 등)

정보 보완 관리

- 1) 주소록 폐기
- 2) 개인정보 취급 보완서 작성
- 3) 담당자 외 정보 접근 불가 시스템

반송우편물 관리

- 1) 고객요청시 반송우편물 관리
- 2) 반송우편물 관련 주소록 관리

꿈과 희망을
전하는 DM



데이터베이스
관리



디자인



각종인쇄물
제작



주소출력



우편 · 택배
작업



우체국접수



EM실천 우편발송은?

1. 디자인-인쇄-우편·택배발송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 구축
2. 주소출력기, 봉투봉합기, 접지기, 라벨인쇄기, 송장출력기, MZ1070(봉투, 안내문 인쇄기)등 장비 보유
3. 우체국, 로젠, 한진 등과의 계약을 통한 저렴한 우편·택배요금 제공
4. 각종 인증·지정서 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제2009-030호)
 -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제2011-008호)
5. 25명 이상의 근로장애인 상시 근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면?

EM실천

Tel. 02-875-9744 Fax. 02-875-9965

홈페이지 <http://www.em21c.com> 이메일 em21c@hanmail.net

“직장의 신! 미스김체조를 따라해 보아요”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직장의 신』의 ‘미스김 체조’가 인기다. 회사에 출근하면 맨손 체조로 몸부터 풀고 보는 미스김. 그 동작은 가히 그로테스크하지만 한 번 보고 나면 쉽사리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특징! 양 팔을 쭉 뻗은 상태로 골반을 마구 돌리는 동작부터 양 팔을 옆구리께로 끌어당기면서 배를 튕겨내는 ‘통 아저씨’ 춤 변형 동작 등 ‘부끄러워’ 도저히 따라해 볼 엄두가 안 나는 동작이다.

미스김은 하지만 주위 시선을 전혀 아랑곳 않는다.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며 더욱 뻘뻘하게 체조하는 그녀. 장소도 불문이다. 어느 때엔 구석에서, 어떤 날은 사무실 한 가운데에서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품고 있어 하고 나면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은 그녀의 체조!! 부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우리 근로사원들도 함께 아침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미스김체조를 따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민건강체조 II



날개펴기

- ① 1-8. 그대로 발을 벌리고 선 자세로 양 손바닥을 몸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한 뒤 가슴 앞에서 손바닥을 양 옆으로 세워 밖으로 밀 듯이 하면서 양 무릎을 굽혀 앉는다. 이때 호흡을 코로 깊게 들이마셨다가 팔을 옆으로 벌릴 때 입으로 내쉰다.
- ② 1-8. 다시 처음 자세로 양 손바닥을 위로 끌어올리듯 하면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 뿜으면서 두 손바닥을 세워 몸 앞으로 밀며 고개를 숙이면서 등을 둥글게 뒤로 밀어준다.
- ③ 1-16. ①②를 다시 한 번 실시한다.



등다리펴기

- ① 1-8. 4박자에 두 다리를 벌린 자세로 서서 두 손을 잡고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면서 뻗어 등을 펴준다. 다시 4박자에 왼다리를 구부려 중심이 왼쪽을 향하고 오른다리는 펴면서 양팔은 왼발무릎 위로 얹는다.
- ② 1-8. ①을 오른쪽으로 반복한다.
- ③ 1-16. ①②를 반복한다.



회돌리기

- ① 1-8. 양발을 선 자세로 팔을 가슴높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돌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휘돌리며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움직여 준다. 이 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 ② 1-8. 팔을 머리위로 크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돌린다. 이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마지막 박자에 왼발이 들어오면서 두 다리를 모아준다.



어깨돌리기

- ① 1-8. 경쾌하게 걸으면서 양손을 어깨 위에 가볍게 얹은 자세로 4박자 동안 앞에서 뒤로 두 번 반복해서 돌리고 두 팔을 머리위로 뻗어 들었다 내린다.
- ② 1-8. ①을 반복한다.
- ③ 1-8. 똑같이 걸으면서 어깨를 뒤에서 앞으로 두 번 돌린 뒤, 양팔을 크게 들었다 내린다.



금강막기

- ① 1-8. 두발을 모아서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왼발 뒤꿈치를 앞으로 내딛는다. 두 팔은 왼쪽으로 크게 휘둘러 왼팔은 몸통 옆을 막고, 오른팔은 이마 앞에서 머리를 막듯이 하는 자세를 한 번 실시한다. 다시 4박자 동안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준다.
- ② 1-8. 다시 같은 동작을 오른쪽으로 실시한다.
- ③ 1-16. ①②를 반복한다



발차기

- ① 1-16. 두 팔을 가슴 앞에 가볍게 준비자세를 취하고 왼발을 뒤에 내딛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4번 뛰고 왼발 앞으로 차준다. 제자리에서 한 번 뛰면서 양팔을 벌렸다가 모아준다. 오른쪽도 실시한다.
- ② 1-16. ①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실시한다.

EM실천 사용설명서

22
+
23

목차

- 1. EM실천 이용방법 알아보기 ————— 1
- 2. EM실천 이용대상 ————— 2
- 3. 필수 서류 ————— 3
- 4. EM실천 이용시간 ————— 4
- 5. 문의전화 ————— 5

하나, EM실천 이용방법 알아보기

서울시·금천구 거주장애인 상담 → 초기면접 → 현장적응평가 → 대상자선정 사례회의
→ 수습평가 → 개별계획서 → 직업적응훈련 → 고용

- 현장적응평가는 ? —— 1개월
- 수습평가 ? —— 3개월
- 직업적응훈련 ? —— 최소 6개월~최대 3년

둘, EM실천 이용대상

- 서울시 및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셋, 필수 서류

- 의뢰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 건강진단서
- 복지카드사본
- 수급자증명서 (해당자)
- 소견서

넷, EM실천 이용시간

- 주 5일 (월 화 수 목 금)
- AM 9:00 ~ PM 6:00

다섯, 문의전화

T. 02-875-9744

F. 02-875-9965